

# 한땀 한땀마다 예술을 심은 규방의 살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 문화》 펴낸 허동화씨

《삼국지》의 부여전을 보면 한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회(繪)·수(繡)·금(錦)·계(綴) 등으로 지은 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회는 무늬 없는 비단, 수는 갖가지 빛깔로 수놓은 비단, 금은 일정한 무늬를 넣어 짠 비단, 계는 동물털로 짠 모직물을 일컫는다. 부여시대에 이미 비단에 수를 놓았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수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온 전통문화의 정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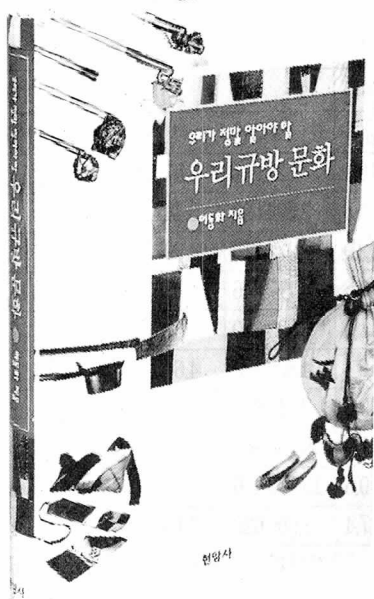
이런 전통 자수와 보자기에 담긴 예술미를 모으는 일에 평생 바친 허동화 사전자수박물관장(72, 문화재전문위원)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현암사)를 펴냈다. 잡다한 규방용품들의 미학적 가치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거기에 담긴 전통의 미의식을 찾아낸 이 책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에서 전통미의 원형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값지다.

## 자수는 회화, 보자기는 추상화

옛 여인네들은 시집갈 때 자리보, 혼수보, 쓸보 등의 용도로 150여장의 보자기를 장만하여 가져갔다고 한다. 자투리 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를 비롯해서, 오색실로 공들여 꾸민 수베갯모, 호롱불 밑에서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낸 자수침장, 수주머니, 색실침, 반진고리, 자수병풍, 바느질 도구, 비녀, 누비, 한지 공예 등 사라져가는 전통 규방용품을 시대와 종류별로 소개한 이 책은, 일상용품에 담긴 생활자수에서부터 가마에 치던 교렴(轎簾), 벼슬아치의 옷에 달던 흉배(胸背), 혼례복인 활옷에 놓은 화려한 고급 자수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냈지요. 그동안 전시회 때마다 만들었던 도록의 자료와 틈틈이 모아 둔 관련자료가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에 포함시켜 주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허관장은 외국에서 찬탄해 마지않는 우리 자수 문화와 조각보 문화를 오히려 한국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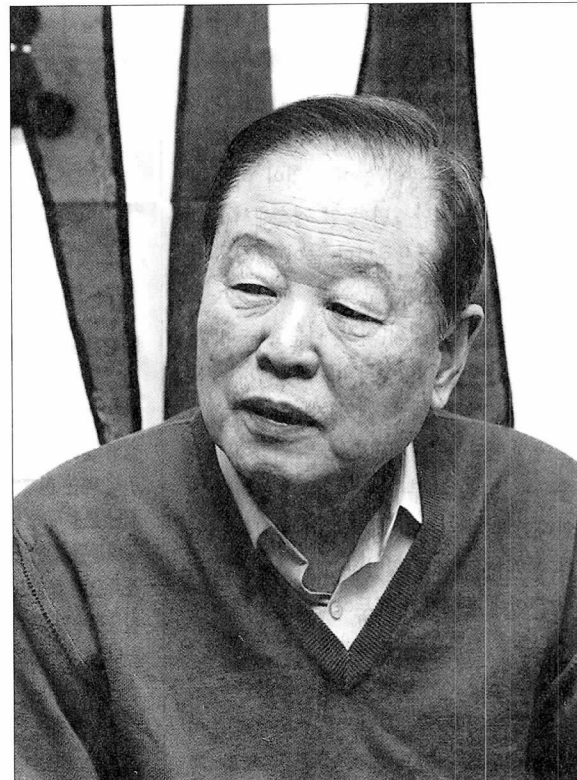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에 보자기 전시회를 나가 보면 그곳 박물관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우리의 색감과 디자인에 그야말로 감동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옛보자기가 오히려 현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자수가 회화풍이라면 자투리천을 조각조각 이어 만든 보자기들은 몬드리안, 클레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의 추상화 작품을 연상시킨다. 선인들의 색채감각은 강렬한 원색끼리 대비시키거나 단아한 무채색으로 차분하게 꾸민 조각보들의 문양과 표현양식에서 드러난다. 자투리 천조각으로 만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에조차 우리의 원초적 미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것이다.

“자수는 담담한 전통 살림살이에서 화려하고 고운 색조와 돋보이는 문양으로 삶에 활력을 주었다”는 허관장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자수와 색보자기의 색채는 ‘투명한 원색’이다. 염색을 위해서는 재료와 수질이 중요한데 우리의 염색문화가 아름다운 것은 ‘공들인’ 덕분이라 한다. 대역섯번 염색을 거듭해야 그리 아름다운 색이 나온다는 것.

그는 우리 문화 대부분은 남성적인 것들인데, 여성문화가 꽃핀 유일한 분야가 자수라고 한다. ‘공적 세계로부터 차단된 삶 속’에 여성들의 미적 감흥과 꿈을 쏟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에는 규방여인들의 한을 읊은 시조와 문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 보자기 전시회를 열 때마다 그곳 박물관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옛 보자기의 색감과 디자인에서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허동화 관장.

헌이 갈피갈피 들어 있다.

“어찌 용모인들 빠지리요/바느질 길쌈삼씨 그 역시 좋은데/가난한 집에 태어난 탓에/중매 할미 모두 몰라준 다음//밤새도록 쉬지않고 베를 짜는데/삐걱삐걱 베틀소리 차갑게 울리네/베틀에는 한필 베가 짜여져 있는데/누집 아씨 시집갈 때 옷감 되려나//손으로 쉬지 않고 가위질하면/추운 밤 열 손가락 곱아 오는데/남 위해 시집갈 옷 짜고 있건만/자기는 해마다 홀로 산다오”는 허난설헌의 〈가난한 여인〉과 〈추야사〉를 비롯하여 〈조침문〉 〈규중칠우쟁론기〉 등 규방용품과 관련된 시·민요·수필은 물론, 각종 고문헌들이 실려 있으며 100쪽에 걸쳐 컬러 화보로 담은 소장품들 또한 볼 만하다.

## 생활문화운동으로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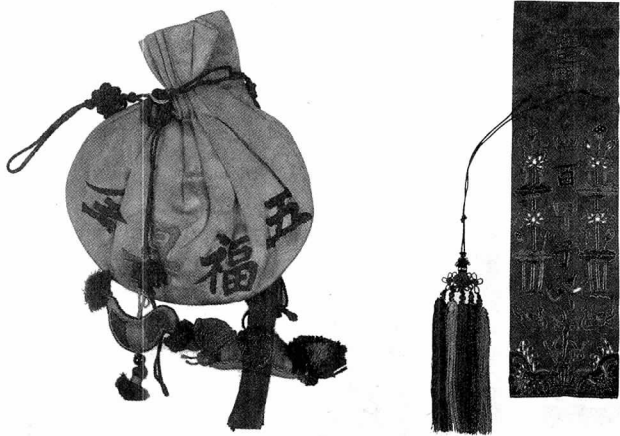
허관장은 베갯모나 주머니 등에 아로새긴 자수를 비롯, 전통 복식, 병풍, 보자기 무늬와 색감에 담긴 한국여인의 정성스런 손길과 예술 감각을 되살려내고 이를 생활문화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자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생

각처럼 버겁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글씨 하나 수놓는 데 40~50땀 정도가 필요하며 이에 걸리는 시간은 40분도 채 안걸리잖습니까. 주부들이 와이셔츠나 책가방 등에 도입할 만합니다. 생활문화운동으로 자수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0여년 동안 허관장에게는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괴로웠고, 소신을 가지고 발품을 팔고 있는 그에게 공상스러우니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이도 많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1년에 1억 가까이 드는 박물관 운영비 부담도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나 벅찼다. 전국에 문혀 있는 자수와 보자기들을 사들이고 박물관을 유지, 보관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거니와 국내외 전시회 비용도 녹록치 않다. 치과의사인 아내의 물심양면의 내조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허관장은 말한다.

“세계는 점점 국경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문화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도 작은 일로 문화를 전하



‘오복구전’이라는 길상문을 수놓은 두루주머니와 개성지방에서 쓰였던 혼례용 덩기인 진주도투락덩기.

는 데 기여하자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해외 전시회를 5백명이 관람했다면 그 파급효과는 몇 배수가 될 터이니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이만한 민간외교가 없다. 또한 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전시회 비용이 3억원 가까이 드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간 허관장 개인이 벌인 민간외교는 100억원 가까이 투자한 효과를 얻은 셈이다.

그는 자신이 소장한 규방용품 중 1천여점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으며 한솔종이박물관, 아주대학교 등에도 소장품을 기증했다. 《한국의 자수》《옛보자기》 등의 책으로 출판문화상 저작상, 보관(寶冠)문화훈장 등을 받기도 했다.

어느 정도 세간에 알려진 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아직도 거의 사재를 털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세계 혜택이나 기부제도 개선 등 수집가에 대한 약간의 배려다. 고미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관련 세제문제에 있어서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조국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그는 여전히 전시회 일정으로 바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호주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오는 5월경에는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몽 벨리아르성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 마정미 기자

## 실발을 거닌 허동화씨의 인생 고백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 이야기》



사전(絲田)은 본래 꼬불꼬불한 논밭 길을 뜻한다. 젊은 시절 장난삼아 자신의 호를 '사전'이라 지은 허동화씨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대학에서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전력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던 그는 60년 말 서울 인사동에서 자수가 놓인 화조(花鳥)병풍을 본 뒤 '충격적 감동'에 사로잡혀 인생 행로를 바꿨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수품과 보자기를 찾아 30여년째 '실발'을 거닐고 있는 그는 어느새 '우리 규방문화 지킴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 이야기》(현암사)는 허관장의 컬렉션을 모은 사전자수박물관에 얽힌 이야기와 자신의 인생 고백이 담긴 책이다. 하찮은 일상용품으로 치부되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던 옛 보자기에 관심을 갖고 수집, 연구에 반평생을 바친 그의 외길인생과, 발품을 팔며 규방여인들의

살림살이를 수집한 고생담이 소박한 문체로 펼쳐진다.

사전자수박물관의 을지로 시절과 논현동 이전 후의 갖가지 일화도 흥미롭게 담겨 있고 꽃을 가꾸거나 낚시를 하는 일을 통해서도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잔잔한 수필이 실려 있으며, 허씨를 규방문화 연구에 전념케 해준 문화 파트론이자 그의 아내인 박영숙씨에 대한 애정 고백도 담겨 있다.

조상의 슬기와 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찾아내고 재현, 보존하는 일이 진정한 세계화라고 그는 책 마지막 장까지 강조한다.

〈마정미〉

